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류경김치공장에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홀벽면에 모신 김치와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깊은 감회속에 한자한자 읽어보시고 김장준비풍경을 보여주는 반경화를 바라보시며 생동하다고, 향긋하게 잘 익은 김치맛이 떠올라 군침이 절로 돈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치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었다.

배추와 무우를 지하에서 승강기와 수직컨베이어를 통하여 공급할수 있게 하였으며 배추자동공급기, 무우자동공급기, 깎두기절단기, 용기세척기, 양념공급기, 진공포장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음으로써 운반과 절단, 절입, 세척 등 생산공정들에서 손로동을 극력 줄일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희한하다고 하시었다.

고도로 자동화, 로봇트화된 설비들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제작설치하였는데 우



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착상이 기발하며 뛰어난 재간을 가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복도를 격폐시키고 발효실, 숙성실, 포장실을 완성공정과 하나로 잇달아 배치하였으며 김치종합분석기 등 첨단수준의 분석설비들을 갖춘 실험분석실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하시었다.

제품전본실에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콩나물김치, 오이김치, 깎두기, 무우장절임, 버섯장절임 등을 진렬해놓았는데 가지수가 정말 많다고, 상표도안도 멋있고 포장도 잘했다고 말씀하시었다.

류경김치공장개작공사는 기술공정설계를 앞세우고 건축설계를 따라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

합의를 강화하여야 로력과 자재, 자금을 절약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건물을 일떠세울 때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과 반년사이에 류경김치공장이 지난해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운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유명

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류경김치공장이 희한하게 전변될수 있는것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이 우리 인민들을 위한 김치공장은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어야 하며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당정책을 조항조항 따져보면서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길에서도 마음속신들메를 더 바짝 조여매고 내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으로 새해의 첫 대문이 열

렸다고 하시면서 경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인민들은 모든것이 유족하고 문명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 깊이 새겨안게 된다고, 올해를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인민의 위대한 아들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희망찬 새해의 첫기쁨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가슴후덥게 절감하는것은 젊음에 넘치고 령도력이 출중하신분을 나라의 최고령도자로 모신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긍지인가 하는것이다.

인민들이 태양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자주적운명과 존엄을 빛내여 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이다.

민족의 운명과 행복은 자위의 힘에 의해 담보된다. 우리 민족은 총대의 강약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겪은 민족이다. 망국민의 피눈물나는 과거사가 다시는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국사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이다.

민족대국상후 적대세력의 횡포무도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에 대해 정치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하다 못해 핵참파까지 들먹거리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준엄하고 첨예한 력사의 돌풍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드시고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였다. 2012년 새해벽두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신 때로부터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과 가철봉의 최전방초소들, 비행부대들과 해군부대들을 비롯한 하늘, 땅, 바다의 조국방선초소들을 무수히 찾고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력강화의 길은 외세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인 각오와 의지가 어린 열사복무의 길이었다. 때로는 자그마한 목선으로, 때로는 고무배로 항해길을 달려 군인들을 찾으시는 그이의 시찰을 두고 재중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그 어느 나라에도 국가지도자나 군통솔자가 이렇게 자아희생적인 노력으로 장병들을 찾아 훈련지침을 주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것은 없었을것이라고 하였다.

군인들이 있는곳을 자신의 집뜨락으로 생각하고 자주 찾아가겠다고 하시며 최고사령부를 전호와 진지에 두시고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길에서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병진로선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고 생성변영을 이룩하시려는 절세의 예국자,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만이 내놓을수 있는 가장 정당한 선견지명의 전략적로선인 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자기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담보되는것만큼 자위적억제력을 천백배로 더욱 다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시며 군력강화에 비상한 열정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국가방위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 등련발적으로 터져오른 장쾌한 폭음을 들으며 사람들은 그 어떤 강적도 단호히 제압할 무진막강한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된 공화국의 위력에 대한

발의 초인간적인 의지와 끝없는 헌신으로 다사다난하였던 지난해를 승리와 전환의 해로 빛내이신 위인의 거룩한 모습을 다시금 우러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여주시어 나라

너무도 겸허하신분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한자드자 가슴에 새기며 사람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두에 서시어 견인

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업무를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정치가로서의 특출한 능력과 자질을 지니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방대한 목표가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에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실감하게 되었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자위의 성새, 불패의 보루로 위력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정치로 이 땅위에 인민의 리상향을 건설하시는 인민적정치가의 귀감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이다.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렇게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는 인민이 있다. 적대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대처하여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에도 인민의 모습을 먼저 그려보시고 새로운 산업시설과 건축물의 설계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릴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원수님이다. 동해안 전방초소를 시찰하신 그 걸음이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으로 이어지고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하신 그 걸음으로 섬방어대의 군인들을 찾으시였으며 전투함선들의 기동훈련을 지도하시며 그 길로 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말그대로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자육을 이어가신 그이이시였다. 류경치과병원과 마식령스키장,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평양광산공장 등 하나하나의 단위들마다에는 폭우를 맞으시며 건설장을 돌아보시고 해발 1360여m의 산정에 놓은 삭도에도 오르시어 안전성을 확인하시였으며 삼복의 무더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생산자들의 로동생활조건개선을 위한 대책도 일일이 세워주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재부들과 새롭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의 현실에는 인민을 위해 만짐을 지고 가시발을 헤치는 각오와 결심, 자신께서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비약한다는 열사복무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헌신을 다하시는 그이의 로고

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원산구 두공장의 신발봉년에도 네차레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연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된 신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이신 인민사랑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지난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의 전화위복의 기적도 한마을, 한 지역이 당한 재난일지라도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여기시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력량과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기간내에 결속하도록 하신 그이의 인민사랑과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만성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1%의 특권층을 위하여 99%의 근로대중이 희생되어야 하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인민존중, 인민중시의 사회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현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있어서 나날이 커가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곧 자신의 락이고 기쁨으로 되었고있다. 지난해 그이께서 동해포구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물고기비린

내를 맡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시고는 잡아들인 물고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심하고있다는 말을 들으시자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에 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시였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눈시울은 젖어있었다. 소금물에 젖은 그이의 신은 구두창이 퍼그나 닳아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조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실 때에도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나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였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면 한평생 인민의 아들로 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한 나라의 령도자이기 전에 수령님의 전사이며 인민의 아들이다. 수령님의 전사로서, 인민의 아들로서 나는 할일이 많다. 나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한생을 초월처럼 태우신 장군님이다.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글자밖에 남는것이 없다고 하신 장군님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오로지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아들이다.

그이께서는 2017년 새해아침에도 인민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시였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하는바이다. 인민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굳히시고 비상한 열정과 무한한 헌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더욱 휘황찬란한 공화국의 2017년이다.

본사기자 리 설

본사기자 리 경월

인민사랑의 뜨거운 구절

서는 거대한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그리고 역경을 순경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인의 손길아래서 나라의 북변땅에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고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설이 수놓아졌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만리마시대를 창조하시어 전대미문의 기적과 사변을 안아오시고도 인민을 위해 못다한 그 무

엇이 있으신듯 오히려 자책하시며 더욱 분발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군대와 인민은 너무도 겸허하시고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인민적정치가의 거룩한 품모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무거운 마음의 근심으로 새해를 맞으시였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하시는 원수님의 겸허하신 말씀에는 인민을 위한 일에 그 어떤 만족도 모르는 숭고한 복무와 헌신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심부름군이 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민헌신의 불같은 맹약이다. 구절구절과 마디마디에 인민을 위하여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폭 배여있어 조국과 인민이 갈피갈피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안은 신년사이다.

본사기자 리 경월

2016년이 새겨주는 진리

행성의 2017년은 동방에서 울려오는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신년사로 충격의 서막을 열었다.

신년사를 접하면서 가슴 찌릿이 젖어든것은 지난해의 모든 자랑찬 승리와 기적이 다 위대한 인민이 안아 온것이고 그러한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린다면 허리굽혀 인사를 보 내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하고 인자하신 모습이였다.

약 30분에 걸친 신년사에서 그분께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십번이나 언급하시였다. 민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갈오시였으면 새해의 첫 아침에 발표하신 신년사에서도 민중을 그처럼 값높이, 정교게 불러주시였으랴.

민중을 위하시는 절세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한자 한자 심장에 쏘아박으면서 나는 홀려온 북의 2016년을 돌이켜보았다.

이북에서 2016년은 범상한 한해가 아니였다. 신년사에도 언급되었듯이 승리와 기적으로 아로새겨진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그 2016년은 어떻게 흘러왔던가. 승리와 기적의 열두달을 낳은 위대한 정치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었던가.

1

2016년의 한해는 세계가 《조선충격》 속에 살아온 해였다. 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세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작지만 강대한 북이 행성을 련속 뒤흔들어놓은 사변의 열두달이였다.

북의 지난해는 첫걸음부터가 류달랐다.

1월 6일, 북에서 울린 첫 수 소란시험의 퇴성은 세인을 깜짝 놀래운 메가톤급의 선언이였다. 그것은 북을 진원지로 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메아리였다. 동방의 새로운 핵 강국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혼비백산한것은 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이었다.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적 조치, 자주적권리행사를 비법으로 몰아대며 굶기야 유엔을 내세운 《초강도제재》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이와 때를 같이하

여 조선반도의 남부에서는 미국과 이남의 호전세력이 대규모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미국은 북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하나 막으려고 압살의 몽둥이를 휘둘러냈다. 《B-52》 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하여 미국이 공언하는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에로 급파되였다.

이쯤되면 음추러들거나 주저 않는것이 행성의 오랜 관례이다. 그러나 세인이 목격할것은 그와 정 상반되는 북의 담대한 행동과 사변적조치들이였다.

적대세력의 군사적압력과 위협을 맞받아 자기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특대형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소형화되고 표준화된 핵탄두 공개, 탄도로켓 대기관재돌입 환경모의시험에서의 성공, 대출력고체로켓 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의 성공,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의 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지상대지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

지구상의 몇 안되는 핵대국들도 이처럼 짧은 기간에 련속적으로, 다발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하지는 못했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수리에 련속 내리쳐진 북의 무서운 불벼락이였다. 북이 핵을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소형화하고 무기화하였으며 미국본토까지 도달할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들도 갖추었음을 알리는 사변의 련속이였다.

《북조선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오바마가 비명을 지른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북은 군사분야에서만 초고속 상승의 궤도를 탄것이 아니다. 경제와 문화, 민생분야에서도 서방의 예상을 뒤엎으며 놀라운 기적을 련이어 창출해냈다.

적대세력이 북에 들이댄 비수가 《유엔력사상 류례없는 초강도의 제재》라면 그에 맞선 북의 무기는 자강력이라는

신비한 무기였다. 그 자강력은 북의 전력사를 관통하고 발전을 추동해온것이였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것이였다.

2016년은 북을 둘러싸고 유엔제재가 이기느냐, 자강력이 이기느냐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긴것은 자강력이였다. 맥이 빠지고 허사로 그친것은 《북조선이 얼마 못가 변화를 선택》 할것이라고 내다보며 적대세력이 고삐를 조여온 제재소동이였다.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은 맞받아아가며 하루가 다르게 솟구쳐올랐다.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 호가 우주에 황홀한 비행운을 새긴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 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북은 또다시 성공하여 우주정복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지난해 북에서 화두로 된것이 《만리마》,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는 말이다.

2016년 북의 한해를 들여다 보면 만리마의 기상이 어떤것인가를 실감케 한다. 웅장한 하나의 새 거리, 북이 창조하는 최고의 문명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려명거리가 착공의 소식을 전한데로부터 몇달도 안되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세인은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하나의 주택단지 그 처럼 짧은 기간에 모습을 완연히 드러낸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한다면 하는 북의 기상이였고 북의 지력이 얼마나 강간가를 유감없이 보여준것이기도 했다.

경제의 자립도태가 더욱 강해지고 생산증산의 동음이 어디서나 울리는 속에 질 좋은 국내산 명제품, 명상품들이 상점마다에 가득차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것도 2016년 북의 즐거운 풍경이였다.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온 나라에 과일향기가 차넘치고 바다에서는 풍어기가 날리고 국제체육무대에서는 북의 승전소식이 련이어 울려 퍼지였다.

지난해에 뜻밖에 들이닥친 수십년래의 큰물피해도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말끔히 가시고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적을 창

조하여 온 행성의 이목을 모으고 덩실한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수천수만의 주민들이 목메여 부르는 로동당만세소리와 더불어 한해의 마감에도 승리의 통장훈을 부른 북이다.

정말 북의 지나온 한해는 고금동서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과 승리의 자랑찬 한해이며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여준 잊지 못할 한해였다.

2

홀려온 2016년의 날과 달들을 되새겨보느라하면 북의 모든 사변들과 기적의 바탕에 놓여 있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다름아닌 《인민존중, 인민복무》가 그것이다.

북의 핵능력고도화는 민중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였다. 미국의 핵이 인류에게 재앙을 들뜨우는 침략의 핵이라면 북의 자위적핵억제력은 그 시작도,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오늘에도 민중의 운명수호라는 숭고한 사명에서 한 치도 벗어난적이 없다.

핵이 없으면 우리 겨레가 또 다시 외세에게 통략당하고 비굴한 노예가 되기에, 전쟁의 참화에서 민중의 운명도 지켜 줄수 없기에 북은 미국의 핵이 발을 부르뜨리는 수소탄의 퇴성을 터치고 핵능력고도화의 려사적대업을 이룩한것이이다.

그래서 사변적인 소식들이 하나둘 알려질 때마다 위성톤은 공포의 비명을 지른 반면 북에서는 민중의 기쁨넘친 만세소리가 울리고 환희의 춤바다가 펼쳐지곤 하였다.

2016년 북이 거둔 창조와 건설의 놀라운 성과들에도 민중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정치가 어리어있어 눈굽을 뜨겁게 한다. 지난해에 더욱 현대화되고 새로 훌륭하게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파, 평양체육기재재공파, 류경안 파총합병원, 평양자라공파, 룡악산비누공파 등 하나하나의 공장들도 민생증진과 직결되지 않은 공장이 없었다.

고산땀이 끼지도록 가지마다 탐스럽게 주렁졌던 빨간 사과

들도 민중들에게 차례졌고 물고기대풍이 또다시 마련되여 새해 첫아침에도 웃음속에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마음껏 맛보고있는것도 바로 평범한 주민들이다.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 공급하는 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중사랑의 뜻을 꽃피워 저무는 지난해의 12월에 평양의 모든 가정들에 물고기들을 한가득 안겨주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사랑은 민중의 가슴을 울리고 북녘의 새 전설로 되여 충격을 주고있다.

세상을 놀래운 북의 신속한 북부지역피해복구도 눈물없는 들을수 없는 감동의 서사적이고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따라할수도 없는 민중사랑의 최절정이라 할수 있다.

뜻밖의 대재난을 당하여 한지에 나앉은 주민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시하던 려명거리건설도 중지하고 나라의 모든 력과 재부를 피해복구에도 돌린 중대조치,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주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절절한 호소, 그에 화답하여 온 나라가 떨쳐나 창조한 전화위복의 기적이였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호소문에도 피력한것처럼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전국가적인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였다.

이런 령도자, 이런 정치체를 왜 민중이 받들고 따르지 않을수 있으랴. 최고령도자의 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 군민이 70일전투, 200일전투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령도자를 우러러 남너로스 누구나 격정의 눈물 흘리고 만세를 터친 2016년 북의 특이한 일심단결의 광경도 이것으로 설명이 된다.

일찌기 어느 한 나라의 철학자는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하였다. 백성을 위해 정치가 있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펼친 참다운 정치를 과연 북이 아닌 그 어디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민중을 위한 정치는 민심의 지지를 받고 백번 승리한다.

이것은 2016년 북의 특기할 사변들이 다시금 립증해준 려사의 진리이다.

음미해보면 민중을 하늘처럼 내세운다는 이민주의론은 북에서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좌우명이였고 정치의 근본을 이루고있다. 북의 세상은 바로 민중존중의 터전위에 일떠선 민중의 지상락원이고 북이 가꾸어가는 문명강국도 민중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을 누려가는 민중의 무릉도원이다.

민중이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지지하며 받드는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의 려사적인 신년사에서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이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너무도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제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려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한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참다운 인민적령수를 모시여 조선은 2016년의 가장 빛나는 승자, 영예로운 주인공이 되였다. 민중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천사만사도 국가가 민중과 함께 웃으며 풀어나가는 북은 앞으로도 끄떡없고 강할것이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2017년의 이 한해에도, 먼 앞날에도 민중이 터치는 기쁨과 고마움의 웃음소리로 행성을 진동시키게 될것이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김철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새해의 힘찬 진군길에 펼쳐나선 공화국군대와 인민에게 백승의 표대 마냥 나뉘는 전투적기치가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구호를 받아안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면총돌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도 믿을것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나 지원이 아니라 인민의 사상정신적힘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

다. 이것은 공화국의 천만 군민이 뼈에 새긴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것처럼 간고하고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공화국이 사소한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한 자랑찬 성과도 다름 아닌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있었기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와 평화적위성발사를 결코 날강도적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하지만 공화국군대와 인민은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승리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

행되는 등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지난해 인민생활향상에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랑찬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되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을 떠나 생 각할수 없는것들이다.

만약가의 도움을 바라 고 남에게 의존하였더라면 이처럼 큰 성과를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식의 투쟁방식과 창조분배로 모든것을 해결해왔기에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실로 자강력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악랄한 침략책동과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주체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동력인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것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하여도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새해의 총진군길에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더 큰 기적과 혁신으로 공화국의 2017년이 보다 큰 승리의 한해로 빛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박철남



핵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그러나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오직 침략자들을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하물며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속에 살아온 공화국이야 더 말할수 없겠는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군사적도발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이 자체의 핵무력을 보유하고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제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 공화국이 사회주의경제강

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에서 신화적인 대비약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사실에 있어서 지난해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에 대한 반공화국모략압살책동과 제재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습하였다.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물밀듯이 쏟아들어오고 경제적봉쇄와 제재책동은 극도로 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북부지역에 해방후 사상관측이래 처음보는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덮쳐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랑찬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려명기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공화국이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경제와 문화건설에서 이렇듯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나지 못했을것이다.

현실은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이야말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평화적환경과 안정된 조건을 보장하는 최고의 방위수단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핵무력의 위력에 기절초풍하여 《북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 그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다고 황당한 체면만을 집요하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의 담보이고 통일 조선의 국보이며 평화보장의 강력한 수단인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거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파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에도 변함없는 우리 공화국정부와의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령장이다.

만능의 보검을 틀어쥔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세계는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날마다 치솟는 공화국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인민이 리상과 꿈을 차란한 현실로

새해의 첫아침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실 굳은 맹세를 다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정초부터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가방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강령적가르침을 주신 소식은 모두의 가슴을 뜨거운 격정으로 젖게 하고있다.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어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

불생산공정을 보시며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좋은 이불들을 짙짙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언제나 그이의 마음속에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는 일념뿐이기에 새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공장들부터 찾으신것이 아니겠는가.

남조선의 언론들도 《새해 첫 행보는 민생이찰》, 《민생경제행보를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택하고 자력자강을 강조》, 《련이은 민생경제행보》 등의 내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현지지도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금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새해의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새해 첫 전투부터 석탄증산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1일 하루동안에만도 지난해 첫날 전투때보다 근 7000t의 석탄을 증산하는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앞장에 실 불타는 열의밑에 세멘트증산투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고있다.

공화국의 위력한 대규모 화학제품생산기지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새해부터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해부터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수할 목표를 내세우고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그이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공화국의 천만군민이 있기에 이 땅에는 머지않아 인민의 리상과 꿈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라에도 오로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자기의 기쁨과 락으로 여기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그런 애민의 령도자는 없다. 지금도 사람들은 대재앙이 이 나라의 북부지역을 휩쓸어갔던 지난해 9월 세력을 진감하며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담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

역인민들의 상처입은 가슴가슴을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어루만져주었다. 돌이켜보면 대재앙의 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십일 간의 날과 날들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정을 그대로 받아안으며 격정의 눈물을 흘려온 세상에 들도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순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

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정신이 안아 퍼온 북변천리에 펼쳐진 전화위복의 웃음꽃바다!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애족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령도자와 뜻과 정으로 뭉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었으며 이 땅에서는 수재민이라는 말자체가 영원히 백

과사건의 단어로만 남게 되었다.

지금 공화국은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련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민들의 인생판이고 삶의 행복이다.

바로 이런 인민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인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미래를 꽃피워가게 할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미래를 안고 사는 인민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이름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서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부전이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들이 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위대한 아버지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맥박치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폭우와 강한 돌풍으로 하여 모든것이 떠내려가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 위대한 령도의 손길과 잇닿아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령도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나

깊은 물고기며 부식물과 딸감, 모포와 이불, 내의 류와 솜옷, 아이들의 학용품, 피해지역학생들의 줄거운 야영생활, 피해지역 인민들이 거의 매일이다 싶어 받아안은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

친부모도 출수 없는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고있기에 난생 처음 당한 엄청난 재난속에서도 피해지역인민들은 비판과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이께서 계시어 불행을 가지고 더 잘살게 된다는 신심에 넘쳐 웃으며 결연히 일떠섰으며 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온 군인들은 인민들과 함께 영웅적인 전투를 벌려 세상에 없는 전화위

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정신이 안아 퍼온 북변천리에 펼쳐진 전화위복의 웃음꽃바다!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애족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령도자와 뜻과 정으로 뭉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었으며 이 땅에서는 수재민이라는 말자체가 영원히 백

과사건의 단어로만 남게 되었다. 지금 공화국은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련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민들의 인생판이고 삶의 행복이다.

바로 이런 인민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인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미래를 꽃피워가게 할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남조선당국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지는 우리의 호소에 역행하는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민족분렬의 비극을 한시바삐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는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절세의 위인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통일선과 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올해신년사에서 또 다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립장과 방략을 밝혀 주시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수치스러운 민족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 애국애족의 뜨거운 일념에 감복되어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으로 화답해나서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남조선당국만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전면도전하여 무모한 대결광기를 부러내고 있다.

불신과 적대, 반목과 질시에 젖어있는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우리의 호소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통일전선공세》라고 엿서나오는가 하면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테 대해서는 《남북관계경색 책임전가》이고 《도발적인 주장과 협박》이라고 전면부정해나서고 있다.

지어 《2017년 업무계획보고》라는 모의판을 벌려놓고 《북핵문제가 최대의 도전》이며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구축》을 내세우는것으로 올해 북남관계를 동족대결로 지속하겠다는 흉심을 꺼리낌없이 공개해내고있는 정도이다.

특히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첨예한 열점지역들에 배치되어있는 괴뢰군부대들을 싸다니며 그 무슨 《응정보복》과 《전쟁불사》를 뽐내대면서 대결과 전쟁고취에 퍼논이 되어 날뛰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무지무도한 이 모든 망동은 우리의 애국적인 선의와 애족적인 아량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다.

이 행성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발전의 진로를 모색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만이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다 못해 전쟁의 위기국면에서 위태로운 분분초조를 보내고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이상 미룰수 없는것이 북남관계이며 추호도 방임할수 없는것이 전쟁상황에 놓인 오늘날의 조선반도정세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학습고대하는 겨레의 열망은 하늘끝에 닿아있는데 한중도 안되는 역적배들에 의해 우리 민족이 류혈과 전쟁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간다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당

국이 새해벽두부터 동족대결과 전쟁광기에 더욱 기승을 부러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립장을 밝힌다.

1.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동족대결정책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심중히 돌이켜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리는것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이다.

과거는 오늘과 래일을 비추주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시점에서 자기들에게 차례진 비참한 운명에 대해 맹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기가 변하고 년대도 바뀌었지만 제도전복이 되였는가, 《체제변화》가 되였는가, 동족이 압살되였는가.

아니다. 결과는 정반대이다. 남조선당국이 매달려온 반공화국대결정책은 력사의 뒤꽂목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 오바마의 《완쾌한 인내정책》의 판박이로 되고말았다.

그것은 또한 격노한 민심의 바다에 수장되고있는 박근혜의 가련한 운명을 통하여 정책아닌 망동으로 세인의 조소거리가 된지 오래다.

정상적인 안목과 사유기능을 가졌다면 누구나 다 알고 도 남을 이 현실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에만 집념하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원칙적

요구에 대해 무턱대고 《남북관계경색의 책임전가술수》, 《전형적인 통일전선공세》로 오도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과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를 말도 안되는 《도발》과 《인권》문제에 걸어 매도하는 부질없는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

《숨쉬는 미이라》로 전락된 박근혜처럼 불운을 겪지 않으려거든, 민심의 버림을 받아 상가집게신세에 처하게 되지 않으려거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넓은 대결관념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였다.

동족대결정책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망동이며 차례질것은 오직 제 무덤을 파는 자멸뿐이라는것을 늦게라도 똑바로 알아두고 제할 일을 찾는것이 좋을것이다.

2. 남조선당국은 아무리 미국을 해내버처럼 떠섬기며 아부 굴종해도 시대대국이 결코 잔명부지를 위한 출로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세월이 흘러서 시대도 자연도 변하고있지만 유독 미국의 사타구니를 맴돌며 숭미사대와 친미매국에 여념이 없는 남조선당국의 추악한 체질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있다.

아직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침략과 약탈, 치부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미국에 기대를 걸고 년초부터 줄을 지어 찾아가는 요락서니아말로 남조선당국자들만이 벌릴수 있는 쓸개빠진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 수호신이나 되는듯이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가스롭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명백히 새겨줄것이 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매달리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견지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의존하여야만 살아갈수 있다는 우매하고 천박하고 암둔한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흉악무도한 미국을 구세주처럼 믿고 섬기다가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고 비명횡사당한자들이 어찌 한들이었는가.

친미사대행각은 재앙의 구렁렁이이고 친북동족행은 통일번영의 길이다.

친미가 곧 미친짓임을 이제 깨달을 때가 되였다.

당면하여 남조선당국은 《북핵폐기》가 아닌 미핵폐기로 정책전환을 해야 하며 친미가 아닌 반미에서 살아나갈 출로를 찾아야 할것이다.

3.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는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제안에 조속히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절세의 위인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와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선과 방침은 하나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려

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대강, 통일방략이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우겨대는것처럼 《통일전선공세》도 아니고 남조선을 《적화》하기 위한것도 아니며 결과 속이 다른 《위장술》은 더욱 아니다.

북남관계개선은 온 민족의 요구이며 시대의 지향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대의 지향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한중도 못되는 역적배들의 잔명부지를 위한 희생물이 될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의 길에서 손잡고 나가자고 내민 우리의 선의와 아량의 손길을 잡는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이고 최후의 선택으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에 담긴 의미심장한 뜻을 정확히 새겨보고 올바른 정치적결단을 내린다면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동반자가 될수 있지만 한사코 뿌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질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다.

온 겨레가 엄하게 주시하고 있다.

민족의 지향과 요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전쟁소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주제 106(2017)년 1월 12일 평 양

지난 4일 서울에서는 통일, 외교, 국방분야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라는 놀음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보수패당들은 겨끔내기로 나서서 《북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비핵화와 평화통일기 반구축》이니, 《〈한〉 미동맹발전 및 국방교류강화》니, 《북핵전환기 국제정세하의 능동적인 외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한마디로 말하여 보수패당은 박근혜의 《대북정책》 등 기존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강행할 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보였다.

이는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으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망동으로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정치송장이나 다름없는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힐 인간추물들의 가련한 추태에 불과

하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한강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박근혜패당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지난해의 전면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결정책철폐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에 귀를 막고 새해 정초부터 케케묵은 대결라령을 또다시 늘어놓는것은 초보적인 사물인식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능아로서의 자기들의 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더우기 용납할수 없는것은 《새해업무보고》라는데서 국방부패거리들이 유사시 《북전쟁지휘부》 제지를 위한 특수부대를 계획되였던 시기보다 2년이나 앞당겨 올해안에 만들겠다고 허세를 돌군것이다. 군부호동이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부나비의 마지막발악에 불과하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해나선 남조선군부강패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척의 의지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남조선에서도 9일 170여명의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와 활동가, 전직 판로 등이 참가하는 단체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박근혜(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통일, 외교, 국방부의 〈새해업무보고〉 내용은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안보포폴리즘)으로 일관하고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전반적인 업무계획들이 《공허한 담론》,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비난해나서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보수패당들이 이미 민심의 버림을 받은 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 살길을 찾아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박호남

남조선의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간 비박근혜파가 8일 《개혁보수신당》이라는 간판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이름을 또 《바른정당》으로 바꾸어 달았다고 한다.

참 우습지 않은가. 박근혜와 한동아리가 되어, 그의 팔다리가 되어 추잡하고 파렴치한짓을 다하던것들이 언제 그랬던가싶게 입을 뱉고 돌아서서 그 무슨 《당》이라는것을 내온것도 뻔뻔스럽지만 당명이 하필이면 《바른정당》인가 하는것이다.

친박근혜파니, 비박근혜파니 으르렁대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당파싸움을 통가하는 파벌싸움을 해대던 추악함, 여당이라 으시대며 《민생을 도모》해야 할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 《란장판국회》로 만든 오만성, 권력을 휘두르며 갖은 부정부패와 사기협잡으로 제 배를 불리운 탐욕, 더우기는 박근혜의 무지, 무능, 무도함에 충실한 환관노릇 등 지난 기간 《새누리당》이 저지른 온갖 죄악이 다 바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까마귀의 백로흉내

셈이 아닌가. 그것을 알았으면 남조선을 험악한 진랑속에 몰아넣은 박근혜의 공범자, 하수인으로서 민심의 판결을 받던가 아니면 자숙하고 동면하는 개구리가 되는것이 바른 처사일진대 《개혁보수》니 뭐니 하다가 《바른정당》이라? 삶은 소우타 꾸레미 더질 정치만화감이 아닐수 없다. 가소로운것은 《보수신

당》을 내오면서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도 있다.》는 가을벼꾸기를 불리운 탐욕, 더우기는 박근혜의 무지, 무능, 무도함에 충실한 환관노릇 등 지난 기간 《새누리당》이 저지른 온갖 죄악이 다 바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기등감으로 쓸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도 《개혁보수신당》이 당명을 짓는데 도움을 청하자 하여 등장한듯이 호들갑을 떨어댄것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보수패당이 당명은 얼마나 바꾸었으며 민심의 눈과 귀를 흐리는 미사려는 또 얼마나 늘어놓았는가. 하지만 그 식이 장식이라고 친미보수세력의 본성이나 악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더욱 증식되기만 하였다. 굴뚝감으로도 쓰지 못할 구새먹은 고목에 색칠이나 알락달락하게 한다고 하여

기등감으로 쓸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도 《개혁보수신당》이 당명을 짓는데 도움을 청하자 하여 등장한듯이 호들갑을 떨어댄것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보수패당이 당명은 얼마나 바꾸었으며 민심의 눈과 귀를 흐리는 미사려는 또 얼마나 늘어놓았는가. 하지만 그 식이 장식이라고 친미보수세력의 본성이나 악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더욱 증식되기만 하였다. 굴뚝감으로도 쓰지 못할 구새먹은 고목에 색칠이나 알락달락하게 한다고 하여

백로가 될수 없는 법이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지나갔다고 죄파가 떨어지지 않았고 더우기 바빠다 하여 민심의 중요의 화살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본사기자 김 현

《민심을 릉멸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제판과 《특검》수사가 본격화되는데 바빠난 보수세력들이 박근혜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 발악적으로 늘어내고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제판에서 보수세력들은 박근혜의 변호인들을 내세워 검찰의 공소장과 《국회》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범죄내용에 대해 《해피한 론리》니, 《증거가 없다.》느니 하며 전면부정하는가 하면 지어는 박근혜의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며 벌린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두고 《민심이 아니라 중북세력에 의해 조지된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리념대결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그런가하면 보수세력들은 극우보수단체의 떨거지들을 끌어모아 박근혜탄핵반대집회를 열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며 《투극》사무실에 밀려가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란동도 부리고있다. 한편 최순실을 비롯한 추문사건관련자들은 저들의 범

죄혐의를 부인하며 탄핵심판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단말마적발악은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야당들은 보수패당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변령을 선포》해야 한다며 《투극》사무실에 밀려가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란동도 부리고있다. 한편 최순실을 비롯한 추문사건관련자들은 저들의 범

죄혐의를 부인하며 탄핵심판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단말마적발악은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야당들은 보수패당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변령을 선포》해야 한다며 《투극》사무실에 밀려가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란동도 부리고있다. 한편 최순실을 비롯한 추문사건관련자들은 저들의 범

죄혐의를 부인하며 탄핵심판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단말마적발악은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야당들은 보수패당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변령을 선포》해야 한다며 《투극》사무실에 밀려가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란동도 부리고있다. 한편 최순실을 비롯한 추문사건관련자들은 저들의 범

죄혐의를 부인하며 탄핵심판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단말마적발악은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야당들은 보수패당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변령을 선포》해야 한다며 《투극》사무실에 밀려가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란동도 부리고있다. 한편 최순실을 비롯한 추문사건관련자들은 저들의 범

새해벽두부터 대결망동

공화국은 올해의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전쟁대결열에 아직도 들떠있는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동족의 뜨거운 애국애족적인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새해벽두부터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통일지향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새해의 시작부터 《북도발가능성 증가》니, 《공세적인 작전태세 유지》니 하는 호전적망발들을 쉼대대는가 하면 올해에도 그 무슨 《도발》과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악의에 차고아고있다.

그런가하면 흑한기 야외전술 훈련을 비롯한 북침전쟁불장난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한 도전적망발과 전쟁연습소동은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공화국의 진정어린 호소에 정면도전하는 무분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호전광들은 극도의 동족대결광증에 사로잡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족의 정당당한 행위를 《도발》로 매도하며 조선반도를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들어왔다.

동족대결광신자들의 호전적인 망발과 광기어린 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고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념원은 실현될수 없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전쟁위험해소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온 민족이 떨쳐나설것을 전체 조선민족에게 절절히 호소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정세격화를 부추기는 고의적인 망발과 도발행위로 공화국의 진정을 외면하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무참히 짓밟고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새해벽두부터 감행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은 그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더욱더 고조시키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그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맛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것이다,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것이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 1000일추모운동 전개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9일 《세월》호참사 1000일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전지역에서 추모운동이 벌어졌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4.16가족협의회, 4.16련대, 4.16안산시민련대의 공동주최로 추모공원이 진행되었다.

공연장에서 발언자들은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아이들과 《세월》호가 차디찬 바다에 그대로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맞은 1000일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수 있음을 확인하는 다짐의 날》이라고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사고해역이 바라보이는 전라남도 진도의 팽목항에서 주민들은 추모모임을 가지고 아직도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되어 있는 9명의 희생자들을 상징하

는 9개의 연을 띄우며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념원하였다.

《국정통단 헌정과피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광주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참사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였으며 인천에서는 로동자단체가 희생자들이 사 용하던 방이 담겨진 사진들을 전시해놓고 박근혜 《정권》퇴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전과 부산, 남조선강원도 횡성에서도 추모집회와 시국집회, 추모모임이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 1000일 추모운동은 남조선 곳곳에서 일제히 벌어졌다.

한편 남조선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1000일을 아파게 살아왔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에 책임있는자들은 아직도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해 침묵하고있다

고 비난하였다. 이 당 원내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아이들을 버리고 간 《세월》호 선장은 단죄를 받았지만 안전을 책임진 또 다른 선장은 청와대에서 국민과 대결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선체인양 등에 당력을 집중할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대변인은 론평에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참사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있는데 대해 밝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가 반드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진실이 인양될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정유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사회 곳곳에 희망보다 불황의 그림자가 더욱 짙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금융,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바람은 년초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은 대규모인력감축을 단행하고있으며 대기업 역시

사합병을 통해 감축, 재배치 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조선, 해운업 종사자 2만여명이 구조조정될 예정이다. ...

희망퇴직의 더 큰 그림자는 퇴사후 이들이 맞닥들혹독한 현실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회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안은 전쟁터, 밖은 지옥》

장기화된 경기불황속에서 구조조정을 최선의 선택으로 내세우고있다. ...

올해초까지 은행권에서는 총 5000명이 회사를 떠날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업에 부는 구조조정바람도 매우 거세다.

인터넷경영성과 평가사이트조사에 따르면 30대그룹 직원수가 9개월사이 1만 400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그중 삼성그룹이 9000명을 넘는 인력을 구조조정 및 계열

정에 점점 더 무감각해져간다는 점이다. 경영악화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풍토가 너무 당연시되는 탓이다. 더우기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정리해고와 달리 법적규제도 존재하지 않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가장 쉽게 꺼내드는 카드다. 안전걸 참여런대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치고 불명예스럽지 않은 퇴

사밖으로 나올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본전을 찾기도 어렵다. 직장인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는 《안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는 말이 요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하다.

(남조선잡지 《주간동아》 2017년 1월 4일호에서 전재)

사화 매화 한그루 (1)

글 리 빈, 그림 김윤일

단원 김홍도는 회화재주가 신선과 같다고 하여 불리워지는 《화선》이라 고 이름을 떨칠만큼 풍속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차연풍경을 그리는 솜씨도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열첩병풍 《석담구곡도》의 제 일 첫폭인 《화암도》 한 폭만을 놓고보아도 그의 실력을 족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김홍도는 수려한 산천풍경을 따뜻한 애정을 담아 그리곤 하였는데 짐작고 소박한 자신의 성미대로 사군자(매화, 란초, 국화, 참대)를 좋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매화를 특별히 사랑하였다.

어느날 아침이었다. 밥을 더 달라고 청얼대는 두 어린것을 달래던 안해가 홍도에게 애원하였다.

《저, 오늘 저녁까지 죽을 쑤고나면 이 집에는 날알이 한알도 없게 되오이다. 그러니 어디서 무얼 좀 번통도와와야지...》

맥빠진 대답이라도 대답은 하고 문밖을 나섰지만 홍도로서는 매우 난처하였다. 그는 지금 그 무슨 《번통》보다 먼저 광화문앞거리로 매화를 보러 가야 했던것이다.

어제였다. 광화문앞 민씨의 집 매화가 기막히게 훌륭하다는 소문이 도화서에 날아들었다. 그 꽃을 보고온 한 화공이 그 화분의 매화는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는 그런 매화가 아니라 천국의 꽃이라고 하면서 말이 모자라도 격찬하였던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김홍도는 《천국매화》를 보고싶은 마음이 하도 간절하여 지난밤에도 빨리 새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잠까지 설치었다.

...민씨의 집에 들어선 김홍도는 눈이 번쩍 뜨이였다. 평생 소문난 매화란 매화는 다 품을 놓고 찾아다닌 그였지만 이 매화처럼 특이하게 아름다운 꽃은 일찌기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통방구리(둥이보다 작고 배가 부른것)같은 오

지화분에 활짝 핀 매화는 가지가 보이지 않게 한뼘씩 덮였는데 송이마다 어찌나 새하얗던지 눈이 다 부시였다. 마치도 눈이 온날 아침햇빛에 눈이 시여서 눈판을 그냥 바라보기가 힘들던 때를 방불케 하였다. 청신한 흰색에 마음이 다 맑아지고 방안에 가득한 향기는 사람의 정신을 취하게 만들었다. 김홍도의 입에서는 부지중 경탄이 터져나왔다.

《아! 이아말로 천국의 매화로다!》

자신조차 잃고 구경에 여념이 없다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지 못하던가 꽃구경을 하자고 술한 사람들이 들어서서 는 바람에 그는 밖으로 밀려났다. 길거리로 나서는 하였으나 마치 정신은 매화꽃화분에 때우고온듯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덧 그의 가슴속에는 민씨의 매화를 제것으로 만들어 곁에 끼고있으면서 그대로 화폭에 옮겨그리고싶은 욕망이 굴뚝처럼 일어났다. 결심이

서는 즉시 되돌아가서 민씨를 만났다.

《주인장, 집의 저 흰 매화를 나에게 팔지 않겠소?》

민씨는 펄쩍 뛰었다. 《여보시오, 손님. 그걸 팔이라고 하시우?》

《값을 치른다지 않소.》

《그런 소리 하지두 마시우. 손님보다 먼저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벌써

같은것인즉 판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요.》

《가보?!》

여기서 김홍도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암, 그렁구말구. 가보야 팔면 안되구 또 팔수도 없지.

《값을 치른다지 않소.》

《그런 소리 하지두 마시우. 손님보다 먼저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벌써

같은것인즉 판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요.》

《가보?!》

여기서 김홍도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암, 그렁구말구. 가보야 팔면 안되구 또 팔수도 없지.

《값을 치른다지 않소.》

《가보?!》

여기서 김홍도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암, 그렁구말구. 가보야 팔면 안되구 또 팔수도 없지.

《값을 치른다지 않소.》

《그런 소리 하지두 마시우. 손님보다 먼저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벌써

같은것인즉 판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요.》

《가보?!》

여기서 김홍도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암, 그렁구말구. 가보야 팔면 안되구 또 팔수도 없지.

《값을 치른다지 않소.》

《그런 소리 하지두 마시우. 손님보다 먼저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벌써

같은것인즉 판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요.》

《가보?!》

여기서 김홍도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암, 그렁구말구. 가보야 팔면 안되구 또 팔수도 없지.

《값을 치른다지 않소.》

않고 흥정판에 접어들었던 자기를 생각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였다. 매화에 미쳤어, 그러지 않고서야 정신이 온전해가지구 어떻게 빈손으로 흥정판에 뛰어들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정말로 어찌구비 없었다. 무슨 허무맹랑한 꿈을 꾸듯 허전하기도 하였고 아이들 놀음판에 섞이였다가 망신을 당한듯 창피하기도 하였다.

했건만 매화에 대한 애착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값을 낼수 없다는 딱한 사정의 절감은 그것에 대한 동경을 더욱 불리워키우는것이였다.

이날밤 그는 도무지 잠을 잘수가 없었다. 눈만 감으면 꽃송이들이 삼삼히 떠오르면서 마치도 그 향기에 취한듯 가슴이 막설레이었다. 그럴수록 그것을 곁에 두고 그대로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담고 싶었다. 날이 새부럼 드디어 그는 결심하였다.

(돈을 꾸셔라도 꽃을 사자.)

그런데 누구한테서?... 석냥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흰쌀 한섬을 살수 있는 이 큰 돈을 누가 선뜻 꾸어주겠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절과 혼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한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는지 깊이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반기문이 신년 기자회견이라는데서 한 말이다.

유엔무대를 떠나기 바쁘게 남조선의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남조선민심이 바라는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가 나타나서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친미사대의 반역아

반기문은 오래전부터 민족을 배반한 철저한 친미굴종분자이다.

정계에 나서기 전부터 숭미사상이 골수에 물들었고 남조선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할 때까지 《미국통》으로 불리운 반기문이었다.

자신이 미국과 《좋은 인연》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며 유엔사무총장자리를 미국에 구걸한 반기문에 대해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그가 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것에 동조적》이고 그의 당선은 《미국에 유리하다.》는 보증까지 할 정도였다.

2011년 대통령 오바마를

이름풀이로 본 《반기문》

는것은 응당하다.

과연 반기문은 그런 재목이 되는가.

물론 선택권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겠지만 아니라고 본다.

반기문의 정치행로나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들춰보아도 그가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반기문, 그 이름 석자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친미사대의 반역아

비슷한 미국고위층의 《강력한 지지》로 재선한 반기문은 유엔을 더더욱 미국의 전용기구로 전락시키고 미국의 정책집행을 위해 《현신》한것으로 하여 세계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반기문이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 《워싱턴포스트》, 《포린 폴리시》를 비롯한 미국언론까지도 《미국의 푸들》, 《미국의 눈치만 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 《유엔을 추악한 타협의 무대로 만들었다.》고 평할 정도였다.

사대와 굴종은 곧 매국배족이고 반역이다.

승미, 친미에 환장한 반기문은 명색이 조선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제, 민족의 통일문제에 언제 한번 도움이 되는 일을 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합세하여 《북핵 및 미사일 소동》과 제재늘음, 《인권》소동 등 반공화국책동의 앞장에 서서 동족대결을 더욱 부추겨왔다.

이러한 승미, 친미사대분자가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이 규탄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기름장어》, 남조선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해먹던 시절 반기문에게 붙은 별명이다.

미끼미끈한 뱀장어에 기름을 발라놓은것처럼 매그럽게 빠져나간다고 하여 《기름장어》라고 했다던지.

그보다는 《령리한》 처세술과 간특한 립기용변을 겸한 기회주의자라는 뜻이 더 잘 통할것이다.

로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유엔사무총장자리에까지 바라올라갔음에도 그가 사망한 후에는 리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며 추모식은 교사

격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합의》나 《싸드》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역사가 높게 평가할것》이니, 《북핵문제에 대응을 잘하고있다.》느니 하며 쓸개빠진 망언을 늘어놓은 반기문이니 남조선에서 또 어떤 화를 불러올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것이다.

몇가지 사실로만 보아도 반기문은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을 배태하고 있는 민족의 반역아라고 확단할수 있다.

하고 추모인사조차 보내지 않은 너절한 인간, 그러던것이 올해초에는 로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에게 제법 새해인사까지 보낸 카멜레온이 바로 반기문이다.

그뿐인가. 박근혜를 끌어안고 추어올리며 짝자공이를 하던것이 엇그제인데 박근혜가 탄핵안 가결로 《식물대통령》이 되자 아닌보살하며 부철에 신발 대하듯 하였다.

그것은 다 다음기 청와대주인으로 되기 위한 기회주의자의 권모술수인것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

《반기문》

에서도 새는 법, 유엔무대에서 놀아댄 꼴은 더욱 가관이였다.

미국의 강권에만 아부하고 다른 대국들의 눈치를 살살 보아가며 말도 변변히 못해 유엔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든 반기문이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반기문이 국제기구의 수장을 꽤 오랜 기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것은 바뀌말하면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큼 능동적지도력이 있었다기보다는 현상유지에 집착함으로써 국제정치의 력학관계상 강대국의 리익에 반하지 않게 비교적 잘 처신했

아는것도, 능력도 없는 문외한

지금 세계언론들은 《유엔력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평가받는 반기문》이 《한국》에서는 다음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있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를만큼 존재감을 상실한 반기문이 《한국》에서 높은 지지를 줄고있다.》고 갖은 비난과 야유조소를 퍼붓고있다.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낮뜨거운 소리들을 계속 듣고있겠는가.

다는 의미로 파악할수 있다.》고 비꼬았다.

유엔사무총장인지 미국의 꼭두각시인지 모르게 행동한 반기문에게 세인이 내린 평은 《유엔력사상 최악의 총장》, 《세계를 누비는 관광객》이다.

《기름장어》 반기문,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싫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 리속을 위해서는 문둥이 코속에 박힌 마늘씨도 파먹을 추물, 주대도 없고 강자앞에서는 항상 굽신거리며 다리를 떠는 이런 인간이 과연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아는것도, 능력도 없는 문외한

남조선인민들이 창피하게 생각하기마련이다. 경제는 아는것이 전혀 없는 문외한, 정치는 초학도수준, 고통스러운 정도로 떠듬거리는 서투른 말솜씨, 미국이라는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놀음만 해온 외교경력, 박근혜와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남조선민심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낮은 기성정치와는 다른 길》이니, 《국민통합》이니를 주절대고 북남관계개선이 평화와 통

일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잘 대응한다.》고 떠들면서 《북핵위협》이니, 《제재》니 고아대던 반기문이다. 이름풀이로 본 반기문은 반역아, 기회주의자, 문외한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였다. 한생을 어떻게 사는데 따라 그의 이름은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민족, 나라의 명예와 존엄도 빛내이게 된다.

력사에는 명인이나 성인군자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만 후세가 교훈으로 삼도록 폭군이나 역적들의 이름도 적혀있다.

반기문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한다.

반기문이 자기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고 이름을 한번 날려보고 싶어 지금 앓을 자리, 설자리 가리지 못하고 물덤병 술덤병하지만 정치판에 뛰어들어보았됐자 그 거 얻을것은 박근혜와 같은 치욕의 대명사뿐일것이다.

전 유엔사무총장이라는 명색이라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추문뒤에 더 추악한 오명을 선사받지 않으려거든 더러운 야망을 버리는것이 상책일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민심을 거역하는 《3지대통합》 놀음

최근 남조선정치권에서 박근혜탄핵안가결로 인한 《조기대통령선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다음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사이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있는 속에 그 무슨 《3지대》의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야당인 《국민의 당》은 저들을 《제3지대》의 원조로 내세우면서 일부 세력과의 《통합》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물론 정치권밖에서 《대선》후보로 물망에 오르고있는 인물들에게 추파를 던지고있으며 지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간 《바른정당》 것들도 저들과 《정체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얼빠진 소리를 쉼치면서 그들도 끌어당겨보려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대통합론에 대해서는 계파편정당과의 통합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반대하고있다.

한편 반기문패들도 신당창당이니, 《대통합》이니 뭐니 하며 분주함을 피우는가 하면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동태를 보아가다가 《제3지대》에 무임승차하여 권력을 잡아보려고 획책하고있다.

《바른정당》 것들과 더불어민주당내의 일부 인물들도 《제3지대》를 기웃거리며 자기들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해보려고 돌아대고있다.

남조선에서 《국민의 당》을 비롯한 각 당, 각파들이 저마끔 《제3지대 통합》을 떠들고있는것은 정치권의 량대축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비해 지지기반이 열세한 조건에서 《제3지대》라는 명분밑에 서로 야합하여 집권야당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제3지대통합》이 각 세력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모순과 갈등으로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진보세력

을 분열와해시키고 우익 보수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줄수 있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우려이다.

지금 박근혜탄핵안가결로 최악의 위기에 몰리고다음기 《정권》을 진보민주세력에게 떼울 형편에 처한 친미보수세력은 《제3지대통합》을 운운하며 진보민주세력을 분열와해시켜 권력을 다시 쥐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친미보수세력들의 이러한 술책을 가려보지 못하고 《진보》의 감투를 쓴사이비정객들의 개인적 야심에 돌아나아가는 진정한 《정권》 교체와 새정치, 새 생활에 대한 민심의 열망은 물거품이 되고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출현하는 참극이 빚어지게 될수 있다.

남조선의 정치사는 이미 그 쓰라린 교훈을 새겨준바 있다.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실현하여 진행된 13대 《대선》에서 야당세력들은

미국의 조종밑에 감행된 여당세력들의 음흉한 분열주의책동으로 서로 갈라져 싸우다 피흘려 싸워이룩한 민주화투쟁의 열매를 로태우군사파소분자에게 빼앗기였다. 보수세력들이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유신》독재잔당인 김종필까지 야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운 사실은 권력을 위대한 보수세력들의 책동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단편적으로 실증해준다. 그러한가하면 보수세력들은 정치간상배인 김영삼역도를 끌어들여 3당합당놀음을 벌림으로써 14대 《대선》에서도 재집권을 실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거족적인 초분투쟁은 썩은 정치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폭발이다. 권력을 노린 보수세력들의 민주세력들에 대한 분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에 어부지리를 주는 어리석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본능은 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한다.

사람의 생활과 동물의 활동에서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

사람은 자기의 의식으로 본능을 조절, 통제, 억제할수 있지만 동물은 생존과 종보존을 위한 무의식적인 본능적활동을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놀아대는 낱이 전자가 아닌 후자, 즉 생존과 종보존을 위한 동물적본능이라 할수 있다.

얼마전 청와대와 외교

부의 1차장이니, 1차관이니 하는것들이 주린개 주방간에 코 들이밀듯 미국에 부지런히 나들며 《북핵대응》이니,

그 버릇 개 주라

《동맹강화》니, 《대북압박공조》니를 구걸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도 빠른 시일내에 미국나들이표를 끊겠다고 한다.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보수당국의 어중이떠중이들

이 미국에 줄을 잇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돌아치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역시 미국에 대한 사대

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있다. 상전의 품에서 한시라도 떨어진다는것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생리

로 하는 남조선보수당국만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파멸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보수세력이 살길은 오직 미국에 매달리는것뿐이다. 그래서 새해벽두부터 눈은 날 개싸다니듯 동

사대굴종이 초래한 갈등과 민정

지금 남조선집권계층은 심각한 대외적경쟁에 빠져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해 첨예한 정치, 군사, 경제적마찰을 빚어온 미국제 《싸드》배치문제는 새해에 들어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하여 외교적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싸드》배치는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초래할것이며 자기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기때문에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주변국들의 확고한 립장이다. 때문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첫번째 타격대상은 바로 남조선이라는것이다. 경제적보복조치도 간단치 않다. 《싸드》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새해에 들어와서도 하루가 멀다하게 압박공세가 계속되고있다.

남양루를 들고 미국의 문을 부지런히 두드려대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태어나고 미국의 동아줄에 의해 유지, 조종되며 미국이 없는 한시도 살수 없는 남조선보수세력의 친미사대적본능은 죽어서도 고칠수 없는 악성유전인자이다.

그러나다고 제 운명이 달라지길라도 하라. 이미 꺼져가는 비참한 운명은 미국상전도 구원해줄수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여기에도가 부산주재 일본총영사관앞에 설치한 성노예소녀상문제를 놓고 일본과도 마찰을 일으키고있다.

《10억푼을 받았으니 《한》일합의를 리행하라.》는 일본당국자의 발언이후 남조선정치권과 인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있고 소녀상설치에 대한 일본의 항의와 보복도 만만치 않아 남조선보수당국은 말그대로 외교적난파에 부닥쳤다.

문제는 남조선에 이러한 총체적인 외교적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방책이 없다는것이다. 외교적갈등을 빨리 최소화시켜야겠으나 실정은 그렇지 않다. 그 누구의 《위협》라령을 떠들며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싸드》배치는 철회할수도 없거니와 또 일본의 소녀상철거요구는 남조선인민들이 견결히 반대하고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공식사죄도 없이 10억푼을 턱에 걸고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라고 꺼리낌없이 요구해오 남조선의 외교부 장관이란자는 골먹은 병어리 마냥 《합의》라는 소리

조차 못내고있는 형편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외교안보가 풍전등화의 처지에 빠졌다.》, 《10억푼을 돌려주자.》, 《결국 지난 위안부합의가 10억푼과 소녀상철거를 맞바꾼 추악한 거래였음을 일본총리가 확인한것이 아닌가.》하며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이 이렇게 된게 우연한것이 아니다. 친미친일사대굴종행위의 필연적결과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주변나라들이 반발하는 위험천만한 《싸드》배치를 강행 추진하였을뿐아니라 보잘것없는 몇푼의 돈에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겨레의 존엄과 리익을 마구 팔아먹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잡아넣어 일본의 치명리는 과거적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쓸개빠진 《합의》라는것을 만들어낸것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다. 보수 《정권》이 강행한 모든 매국배족적협정과 조치들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것이 지금 남조선민심의 강한 요구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